

민주연구원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입법과제”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송창욱 부원장)은 9월 8일(화),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의 세 번째 브리핑으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입법과제”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송창욱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2026년 정기국회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입법과제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라고 밝히며, “보건·의료 분야 현안이 산적해 있고 모든 입법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국민 건강권에 직결되는 네 가지 문제를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브리핑은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를 네 가지 숫자로 정리하고, 이에 연관된 핵심 과제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상시적·예방적 진료와 건강관리, 간병 부담 경감, 지역 간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의 중요성과 의의를 정리했다.”라고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보건·의료 분야 핵심 문제를 응급의료 공백, 취약한 일차의료, 과도한 간병부담, 지역 간 의료 격차로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입법과제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 먼저 네 가지 핵심 입법과 기존 이재명정부 주요 입법의 관계를 정리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했으며, 브리핑은 지역의사제 도입 및 국립의전원 설립은 공공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은 재정적 기반,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 거점의료기관을 마련하는 인력-재정-기관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조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반기 국회의 후속 입법은 이러한 기반 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 이용 각 단계와 서비스 제공체계를 보완하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위한 네 가지 핵심 입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반복되는 응급환자 이송·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브리핑은 올해 5월 **청주의 고위험 산모가 부산 원정이송까지 3시간 20분이 소요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해당 입법은 응급환자 이송·전원·최종치료를 정의하고 응급진료권을 신설하며, 병원의 수용불가 사전 고지제도 도입, 실시간 이송·수용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김윤 의원안 등 9개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와 있으며, 핵심 법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예방적·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한 주치의제 도입이다. 브리핑은 일반 건강 검진에서 이상소견을 받은 **고혈압 환자의 진료연계율이 22.7%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차 의료를 강화하고 건강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해당 입법은 일차의료의 법적 정의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건강주치의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다. 현재 남인순 의원안이 상임위 심사 중이며, 주치의제의 전국적 도입 방안, 주치의 등록 방식, 환자의 변경·선택권, 의원·보건소·지역책임의료기관 간 정교한 역할 설정 등의 세안을 정리하여 입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 **셋째**, 가계의 간병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브리핑은 사적 간병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구당 간병인 고용 비용이 월평균 370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을 추가해 가구 간병 부담율을 30%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현재 이수진 의원안 등 10개 법안이 심사 중이며, 적용 범위와 대상, 단계적 적용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간병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같이 통과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 **넷째**,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브리핑은 적시에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이 특성에 맞는 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개정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 아울러 브리핑은 네 가지 핵심 입법 추진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FAQ 형식으로 정리하여 쟁점에 대한 논의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네 가지 핵심 입법의 통과로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변화를 ‘네 가지 숫자’의 변화로 담아내고 있다.